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박 정 애¹⁾

진 미 경²⁾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대학 9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637명이었다. 한국판 심리적 독립척도, 한국판 대학생활적응척도, 정서관계척도를 사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여 대학생 집단에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으며,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대학생은 부, 이성친구와 가까울수록, 여자 대학생은 모와 가까울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가까운 관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와 가까운 정도에 따라 남자 대학생의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활적응에서 부·모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심리적 독립,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학생활적응

* 이 논문은 2014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2)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부교수 (E-mail : mkjin12@sookmyung.ac.kr)

I. 서 론

대학시절은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발달단계상 청년 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문제, 확대된 교우 관계, 이성 문제, 진로 문제, 가치관 문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며(장휘숙, 2004), 이와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적응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다. 대학은 개인이 성인기 진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장으로,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보다 넓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생활방식, 주도적인 학업생활을 요구받는다(김성경, 2003).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이후 개인 적응체제의 기본이 되는 적응 양식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대학생활에서 사회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학업 및 각종 과외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느냐는 이후 발달단계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노충래, 2002).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 사회활동 등을 원만히 해나가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며,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뜻한다(Baker & Siryk, 1984).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60%가 넘는 대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과제 및 시험에 대한 부담,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예랑, 2013.2.26). 또한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학생의 비율이 2008년 54.1%에서 2010년 6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여성가족부, 2012),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금까지 대학생활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los(1967)는 청년기에는 독립된 개인으로써 정체감을 획득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하여, 부모와의 유아적 대인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청년들은 행동, 정서, 태도적 측면에서 점점 자율적으로 되어가며(Douvan & Adelson, 1966; Hoffman, 1984),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죄의식, 불신, 불안과 같은 감정을 해소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년들이 직면해야 할 주요 발달 과제이며, 청년기 이후 사회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Okun, 1984). 특히, 청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Sullivan과 Sullivan(1980)은 부모로부터 성공적으로 독립성을 성취한 대학생들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이 요구되는 대학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험(Josselson, 1988)을 한 대학생들은 이수 과목의 선택, 시간 관리, 진로 선택에 따른 취업 준비, 동아리 활동 등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게 된다.

하지만 심리적 독립과 청년기 이후 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김영린, 이기학, 2012; 김은영, 1993; 진수경, 1995; 한혜준, 이희자, 1994; Hoffman, 1984; Lapsley, Rice, & Shadid, 1989; Palladino & Blustein, 1994)을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별로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그 연구 결과들이 상반되고 있어 심리적 독립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offman(1984)이 개발한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의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태도적 독립’, ‘갈등적 독립’ 총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각 하위요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정도를,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 과도한 인정·지지를 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뜻한다. ‘태도적 독립’은 부모와는 구별된 자신만의 주관적 신념 및 가치관을 확

립한 정도를, 그리고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후회, 불신, 분노 등의 갈등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심리적 독립의 각 하위요인별로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갈등적 독립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즉 대학생이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 불안, 불신, 책임감 등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지영, 2000; 정은희, 1992; Beyers & Goossens, 2003;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Lapsley et al., 1989;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Rice, 1992; Rice, Cole, & Lapsley, 1990). 이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한 상태일 때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러한 원만한 대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Hoffman, 1984).

그런데 갈등적 독립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의 경우,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Lapsley et al., 1989), 태도적 독립(Lopez et al., 1988)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기능적 독립(김은영, 1993), 정서적 독립(김은영, 1993; Hoffman, 1984), 태도적 독립(김은영, 1993; Hoffman, 1984; Palladino & Blustein, 1994)이 높을수록 오히려 대학생활적응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독립 척도 하위요인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기능적, 정서적, 태도적 독립은 Douvan과 Adelson(1966)의

행동적, 정서적, 태도적 자율성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인 반면, 갈등적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뜻한다. 즉, 기능적, 정서적, 태도적 독립은 갈등적 독립과 달리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기능적, 정서적, 태도적 독립의 경우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세 하위요인들이 갈등적 독립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능적, 정서적, 태도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하여 두 변인 간 관계의 강도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다룬 Lopez, Campbell, Watkins(1986)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Hoffman(1984)과 Rice(1992)의 연구에서도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은영(1993), Lapsley 등(1989) 또한 태도적 독립이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차는 남성에게는 독립성이 어린 시절부터 강조되는 특성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독립성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심리적 독립 수준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은영, 1993; 한혜준, 이희자, 1994; Lapsley et al., 1989, Lopez et al., 1986), Lopez 등(1986)은 여성에게 있어서 적절한 적응이란 ‘분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분리 수준이 낮을 때 오히려 대학에 더 빨리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심리적 독립성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의 적응은 개인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심리적 독립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적 요소(Jackson, 1992)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적 요소를 대처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정현욱, 1996).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피상적인 관계의 타인들보다는 유의미한 타인들(significant others)로부터 제공된 것일 때 그 완충효과가 더 크다(Pantages & Creedon, 1978). 이

에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가까운 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의 사회 관계망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Kahn & Antonucci, 1980; Takahashi & Sakamoto, 2000; Weiss, 1974)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친한 친구,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인물들과의 관계, 즉 가까운 사회적 관계(close social relationships)가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공통된 사실은 개인은 정서적 지지, 격려와 도움, 경험과 정보의 나눔과 같은 기본 심리적 기능(Takahashi & Sakamoto, 2000) 또는 애착기능(Kahn & Antonucci, 1980)을 대부분 부모나 형제자매, 친한 친구,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인물들에게서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은 가까운 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정과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Weiss, 1974). 또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 방법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Cobb, 1976).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이 가까운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서적 지지 및 도움,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다하더라도 대학생이 가까운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들을 정서적·심리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학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개인이 다수의 중요한 타인 중 누구를 통해 기본적인 심리적 기능 또는 애착기능을 만족시키는지 개인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rman & Buhrmester, 1992; Hazan & Zeifman, 1994). 이에 Takahashi와 Sakamoto(2000)는 개인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관계척도(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ARS)를 개발하였다. 정서관계척도(ARS)는 청년기 개인의 사회관계망 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되어 온 어머니, 아버지, 가장 친한 형제자매, 가장 친한 동성친구, 이성친구(romantic partner), 존경하는 인물 총 6명의 인물들과 개인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이다(Takahashi & Sakamoto, 2000). 본 연구에서는 정서관계척도(ARS)를 사용하여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동성친구, 이성친구, 존경인물 등 각 대상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과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볼 때, 남녀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이고 가까운 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Birditt & Fingerman, 2003),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믿고 의지할만한 사람으로 친족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정경희, 1995; Moore, 1990), 가까운 사회적 관계 양상에 성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가

까운 사회적 관계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진미경(2012)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동성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대학생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독립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는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개인의 각 대상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남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양상에 따라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방향과 강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및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담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남녀 대학생의 각 대상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각 대상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표집은 서울 및 경기 소재 4년제 및 2·3년제 대학 9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68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66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637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637)

변인	구분	n (%)
성별	남	242 (37.99)
	여	395 (62.01)
나이	20세 미만	857 (13.34)
	20세 - 24세	541 (84.92)
	25세 이상	11 (1.73)
학년	1학년	176 (27.63)
	2학년	228 (35.79)
	3학년	141 (22.14)
	4학년	92 (14.44)
전공	인문사회계열	370 (58.08)
	자연공학계열	160 (25.12)
	사범계열	30 (4.71)
	예체능계열	37 (5.81)
	의약학계열	37 (5.81)
	기타	3 (0.47)

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심리적 독립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독립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정은희(1992)가 한국의 문화적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정서적 독립 4가지 하위요인,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모든 문항이 부정적 진술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역채점을 한다. 각 하위 차원의 점수를 모두 합한 값이 전체의 심리적 독립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그 값은 .89로 나타났다. 또한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기능적 독립 .89, 정서적 독립 .86, 갈등적 독립 .87, 태도적 독립 .92로 나타났다.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학생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Takahashi와 Sakamoto(2000)가 제작한 「정서관계척도(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AR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영어로 된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할 때는

원척도와 번역된 척도 간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방법인 역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역번안 기법은 원척도와 번역된 척도 간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판단적 방법 중 하나로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며(Hulin, Drasgow, & Komocar, 1982), 원검사와 가장 유사한 번안된 검사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Werner & Campbell, 1970; 구자연, 2009에서 재인용). 먼저 번안의 1차 과정으로서 영어권 국가에서 초, 중, 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유관 전공을 한 이중언어자이며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1인이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2차 과정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초, 중, 고교를 졸업한 이중언어자이며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또 다른 1인이 1차 번안된 한국어 문항을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3차 과정으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1인, 미국에서 각각 16년, 18년 동안 거주 중이며 이중언어자인 초등학교사 1인과 직장인 1인이 원척도 문항과 역번역된 문항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관 분야 전공 교수의 검토를 거쳐 예비조사를 위한 문항을 결정하였다.

또한 자료를 수집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번안된 척도가 원 척도와 동등한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Takahashi와 Sakamoto(2000)는 그들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정서관계척도 모델이 가장 적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번안된 척도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이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GFI .88~.95, RMSEA .08~.13, CFI .91

표 2. 정서관계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	RMSEA	CFI
모	.91	.12	.93
부	.89	.13	.92
형제자매	.90	.12	.95
동성친구	.95	.08	.97
이성친구	.92	.11	.96
존경인물	.88	.13	.91

~.97. 수준으로 나타나 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한 수치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 척도와 변안된 척도 간의 동등성을 확인하였다.

정서관계척도(ARS)는 개인이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인물에게 기대하는 6가지 정서적·심리적 기능, 즉 (1) 근접성 추구, (2) 정서적지지, (3) 행동에 대한 확신, (4) 정보와 경험의 나눔, (5) 격려와 도움, (6) 보살핌 주기를 묘사하는 총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부모, 형제자매, 동성친구, 이성친구, 배우자, 자녀 등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5~8명을 대상으로 12개로 구성된 한 세트의 질문지를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개인의 사회관계망 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되어 온 어머니, 아버지, 가장 친한 형제자매, 가장 친한 동성친구, 이성친구(romantic partner), 존경하는 인물 총 6명의 인물(Takahashi & Sakamoto, 2000)에 대하여 질문지를 시행하였다. 만약 평가 대상이 현재 부재하는 상황이라면 정서관계척도의 매뉴얼에 따라 해당 대상이 있었던 경험을 되살리거나, 해당 대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또는 이성 및 동

성친구가 여러 명이려면 그 중 가장 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명을 생각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된다. 결과는 각 대상에 대한 12문항의 총점으로 산출되는데,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이 해당 인물을 친밀하고 가깝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값은 .94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상별 Cronbach's α 계수는 모 .93, 부 .93, 형제자매 .95, 동성친구 .93, 이성친구 .95, 존경인물 .9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이 제작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변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총 67문항,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2개의 문항은 어느 하위 척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5개의 문항은 2개의 하위척도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9)’까지의 Likert 9점 척도로 평정되며, 채점은 먼저 부적응적인 내용의 문항들을 역산한 후 각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의 응답들을 합하여 전체 척도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현진원(1992)의 연구에서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4년 3월 첫째 주부터 2주간 진행되었고, 연구자가 서울 및 경기 소재의 대학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여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해당 학교의 수업 시간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과 소요 시간,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및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이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다(강병서, 조철호, 2013). 이 때, 예측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는 상호작용항 계수 β 의 유의성에 의해 판단하며(이학식, 2012), R^2 변화량이 유의미할 경우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본다(Aiken & West, 1991; Frazier, Tix, & Barron,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한 후 상호작용항 계수 β 와 R^2 변화량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그래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절변인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2, 3의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가까운 사회적 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 중 '모', '형제자매', '동성친구'와의 가까운 관계,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서적 독립' 및 '갈등적 독립'이 높고, '모', '형제자매', '동성친구'와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낮았으며, 대학생활적응 수준은 높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 및 Tolerance(잔여분산 값), VIF(분산팽창요인)를 산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진단은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투입되는 예측변인간의 독립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절차로서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7 이상 또는 -0.7 이하이거나, VIF가 10보다 클 때(즉, Tolerance가 .10보다 작을 때)

표 3. 심리적 독립,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t	최소값		최대값	
		남($n = 242$)	여($n = 395$)		남	여	남	여
심리적 독립	기능적 독립	40.32(8.64)	39.53(8.57)	1.12	19.00	14.00	64.00	65.00
	정서적 독립	27.75(5.47)	26.26(6.38)	3.12**	16.00	10.00	46.00	49.00
	갈등적 독립	65.40(12.84)	62.38(12.43)	2.94**	31.00	21.00	96.00	96.00
	태도적 독립	36.55(7.43)	37.40(7.80)	-1.40	15.00	14.00	61.00	60.00
가까운 사회적 관계	모	46.38(8.98)	49.35(7.93)	-4.22***	12.00	17.00	60.00	60.00
	부	46.20(8.66)	46.51(9.22)	-.41	18.00	12.00	60.00	60.00
	형제자매	43.90(10.24)	46.53(10.00)	-3.19**	12.00	12.00	60.00	60.00
	동성친구	46.23(8.30)	49.20(7.25)	-4.59***	15.00	24.00	60.00	60.00
	이성친구	49.85(9.29)	50.55(7.95)	-.98	12.00	12.00	60.00	60.00
	존경인물	42.50(9.22)	44.89(8.18)	-3.32**	12.00	12.00	60.00	60.00
대학생활적응		374.61(71.81)	357.44(65.60)	3.09**	187.00	139.00	565.00	585.00

* $p < .05$. ** $p < .01$. *** $p < .001$

예측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양혁승, 2013). 분석결과, 각 변인의 상관정도는 표 4-1,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54 ~ .67사이였으며, 편차 점수를 이용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통제한 후 VIF가 1.43 이하로 나타나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표 4-1. 남자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n = 242$)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능적독립	1.00										
2. 정서적독립	.67***	1.00									
3. 갈등적독립	.25***	.04	1.00								
4. 태도적독립	.50***	.45***	.03	1.00							
5. 모	-.39***	-.52***	.15*	-.35***	1.00						
6. 부	-.35***	-.51***	.22***	-.35***	.81***	1.00					
7. 형제자매	-.20**	-.40***	.13*	-.27***	.65***	.67***	1.00				
8. 동성친구	-.20**	-.19**	.01	-.17**	.52***	.53***	.64***	1.00			
9. 이성친구	-.09	-.11	.13*	-.17**	.51***	.49***	.52***	.56***	1.00		
10. 존경인물	-.19**	-.13*	-.04	-.25***	.41***	.37***	.59***	.53***	.34***	1.00	
11. 대학생활적응	-.08	-.18**	.37***	-.32***	.32***	.40***	.35***	.28***	.34***	.28***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2. 여자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n = 395$)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능적독립	1.00										
2. 정서적독립	.66***	1.00									
3. 갈등적독립	.10	-.11*	1.00								
4. 태도적독립	.52***	.54***	-.22***	1.00							
5. 모	-.35***	-.54***	.28***	-.37***	1.00						
6. 부	-.26***	-.42***	.21***	-.28***	.60***	1.00					
7. 형제자매	-.25***	-.41***	.11*	-.23***	.56***	.46***	1.00				
8. 동성친구	-.15**	-.23***	.04	-.10	.42***	.34***	.36***	1.00			
9. 이성친구	-.18***	-.23***	.02	.17***	.35***	.26***	.36***	.52***	1.00		
10. 존경인물	-.17***	-.25***	.00	-.24***	.36***	.31***	.32***	.44***	.37***	1.00	
11. 대학생활적응	-.01	-.08	.46***	-.31	.30***	.23***	.21***	.17***	.16**	.14**	1.00

* $p < .05$. ** $p < .01$. *** $p < .001$.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이 남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독립의 각 하위요인을 예측변인, 대학생활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설명력

은 남학생 22%($F = 18.28, p < .001$), 여학생 26%($F = 36.17, p < .001$)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갈등적 독립($\beta = .36, p < .001$)과 태도적 독립($\beta = -.29, p < .001$)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역시 갈등적 독립($\beta = .41, p < .001$)과 태도적 독립($\beta = -.30, p < .001$)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표 5. 남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242$)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F
대학 생활 적응	기능적 독립	.20	.02	.28	.22	18.28***
	정서적 독립	-1.00	-.08	-.97		
	갈등적 독립	2.01	.36***	5.95		
	태도적 독립	-2.76	-.29***	-4.25		

*** $p < .001$.

표 6. 여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39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F^2	F
대학 생활 적응	기능적 독립	.20	.03	.41	.26	36.17***
	정서적 독립	1.17	.11	1.85		
	갈등적 독립	2.16	.41***	8.82		
	태도적 독립	-2.48	-.29***	-5.35		

*** $p < .001$.

죄의식, 불안, 후회, 불신, 분노 등의 갈등 감정이 없을수록, 부모와 비슷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질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남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 부, 형제자매, 동성친구, 이성친구, 존경인물과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예측변인, 대학생활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설명력은 남학생 18%($F = 9.93, p < .001$), 여학생 9%($F = 7.12, p < .001$)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 중 부($\beta = .32, p < .01$), 이성친구($\beta = .18, p < .05$)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여학생의 경우 모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beta = .22, p < .01$)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부, 이성친구와 가깝고 친밀할수록, 여학생이 모와 가깝고 친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학생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242$)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F^2	F
대학 생활 적응	모	-.76	-.10	-.91	.18	9.93***
	부	2.66	.32**	3.00		
	형제자매	.37	.05	.55		
	동성친구	-.35	-.04	-.48		
	이성친구	1.42	.18*	2.47		
	존경인물	1.00	.13	1.70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여학생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39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F
대학 생활 적응	모	1.80	.22**	7.75	.09	7.12***
	부	.48	.07	3.22		
	형제자매	.21	.03	1.08		
	동성친구	.13	.01	.54		
	이성친구	.35	.04	.23		
	존경인물	.11	.01	.73		

** $p < .01$. *** $p < .001$.

3.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생활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예측변인으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각 대상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투입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투입된 변인들과 함께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각 대상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그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기능적 독립’ 및 ‘정서적 독립’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모, 부

표 9. 남학생의 기능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n = 242$)

준거 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R^2	$\triangle R^2$	F
대학 생활 적응	1	기능적 독립 (A)	.05	.10	.03	14.47***
		가까운 사회적 관계-모 (B)	.35***			
	2	기능적 독립 (A)	.05	.13		13.17***
		가까운 사회적 관계-모 (B)	.40***			
		(A) x (B)	-.19**			
대학 생활 적응	1	기능적 독립 (A)	.07	.15	22.95***	
		가까운 사회적 관계-부 (B)	.42***			
	2	기능적 독립 (A)	.07	.17	17.28***	
		가까운 사회적 관계-부 (B)	.45***			
		(A) x (B)	-.14*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남학생의 정서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n = 242$)

준거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R^2	ΔR^2	F
대학 생활 적응	1	정서적 독립 (A)	-.01	.10		14.10***
		가까운 사회적 관계-모 (B)	.32***			
	2	정서적 독립 (A)	-.03	.13	.03	13.39***
		가까운 사회적 관계-모 (B)	.37***			
		(A) x (B)	-.21**			
대학 생활 적응	1	정서적 독립 (A)	.04	.15		22.41***
		가까운 사회적 관계-부 (B)	.41***			
	2	정서적 독립 (A)	.02	.16	.01	16.67***
		가까운 사회적 관계-부 (B)	.43***			
		(A) x (B)	-.13*			

* $p < .05$. ** $p < .01$. *** $p < .001$.

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 동성친구, 이성친구 등 나머지 대상들과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절효과 나타난 경우만 표 9, 10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기능적 독립’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모 10%($F = 14.47, p < .001$), 부 15%($F = 22.95, p < .001$)로 유의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 ‘기능적 독립’과 ‘모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항, ‘기능적 독립’과 ‘부와의 가

까운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각각 추가로 투입하자 설명력이 모 13%($F = 13.17, p < .001$)로 나타나 3%의 증분설명력을, 부 17%($F = 17.28, p < .001$)로 나타나 2%의 증분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모 $\beta = -.19, p < .01$, 부 $\beta = -.14, p < .05$) 남학생의 기능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 2를 제시하였다. 그림 1, 2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기능적 독립’ 수준에 관계없이 모, 부와 가깝다고 느낄 때 대학생활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구체적 양상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적 독립’이 높은 집단은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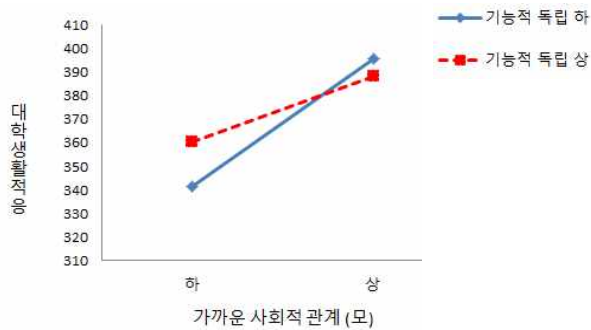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기능적 독립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모)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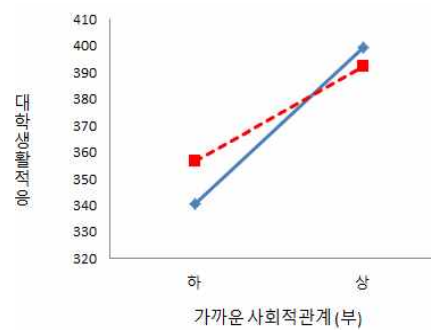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기능적 독립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부)의 상호작용 효과

라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완만한 상승적 변화를 보이지만, ‘기능적 독립’이 낮은 집단은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이 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적 독립’이 높으면서 모, 부와 가깝고 친밀할 때가 모, 부와 가깝고 친밀하지 않을 때 보다 적응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은 ‘기능적 독립’ 수준이 낮은 남학생의 경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즉, ‘기능적 독립’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모, 부와 가깝고 친밀하여 지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대학생활에서 쉽게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독립’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모 10%($F = 14.10, p < .001$), 부 15%($F = 22.41, p < .001$)로 유의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 ‘정서적 독립’과 ‘모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항, ‘정서적 독립’과 ‘부와

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추가로 투입하자 설명력이 모 13%($F = 13.39, p < .001$)로 나타나 3%의 증분설명력을, 부 16%($F = 16.67, p < .001$)로 나타나 1%의 증분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모 $\beta = -.21, p < .01$, 부 $\beta = -.13, p < .05$), 남학생의 정서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3, 4를 제시하였다. 그림 3, 4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정서적 독립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 부와 관계가 가깝다고 느낄 때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 정서적 독립이 높은 집단은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완만한 상승적 변화를 보이지만, 정서적 독립 수준이 낮은 집단은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이 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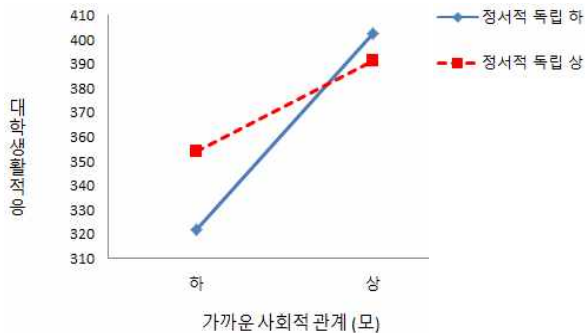


그림 3. 남학생의 정서적 독립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모)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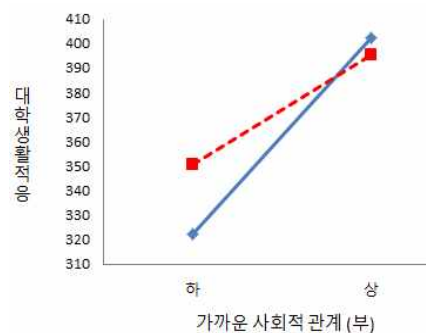


그림 4. 남학생의 정서적 독립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부)의 상호작용 효과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독립이 높으면서도, 부와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가 모, 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성은 정서적 독립 수준이 낮은 남학생의 경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즉, 정서적 독립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모, 부와 가깝고 친밀하여 정서적 위안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학 생활에서 쉽게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적응 수준이 높고, 태도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적응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에서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한 연구들(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Lapsley et al., 1989; Lopez et al., 1988; Rice et al., 1990)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태도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힌 김은영(1993), Hoffman(198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갈등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의 다른 어떤 하위요인보다 대학생생활적응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이나 화, 죄책감, 불신 등의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 책임감, 불안, 불신 등의 감정이 없는 대학생일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고(강선희, 2009),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지영, 2003)

을 사용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된다. 즉, 대학생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Hoffman, 1984).

둘째, 남녀 대학생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동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이 동성의 부모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로는 아버지 지원의 영향은 남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Armsden(1986), Cubis, Lewin과 Dawes(1989)의 연구, 여학생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나타난 진미경(2012)의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 결과들과 상반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와의 높은 애착 안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는 않거나(Raja, McGee, & Stanton, 1992) 남녀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반대성의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장휘숙, 1997)고 보고되고 있어 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고려할 때, 추후에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성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렇게 선행연구들과 일치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청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대학

생들에게 여전히 부모가 정서적·심리적 지지 자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특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또는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여도 자녀가 부모와 여전히 심리적으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거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심리적, 물리적 의존도가 점점 약화되는 서양의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 관점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와의 가까운 관계가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낭만적 대상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Furman과 Buhrmester(199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여대생이 이성친구를 정서적,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한 Takahashi와 Sakamoto (200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고려할 때, 보다 대규모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양상에 대한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셋째,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모’, ‘부’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남자대학생의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 높을 경우 ‘모’, ‘부’와의 가까운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 낮은 경우 ‘모’, ‘부’와 가깝고 친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수준이 낮다하더라도 항상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와 가깝고 친밀할 경우 부모로부터 격려와 지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에 대한 낮은 분리-개별화와 높은 애착을 이룬 대학생 집단이 부모에 대한 낮은 분리-개별화와 낮은 애착을 이룬 대학생 집단보다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는 장휘숙(2002)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낮은 기능

적, 정서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부모 등의 가까운 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상담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건전한 심리적 독립성을 이루는 동시에 친밀한 부모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심리적 독립의 각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녀 대학생의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죄의식, 책임감, 불안, 불신 등의 감정이 청소년기 이후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학생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문제는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적 개입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대학의 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이 부모자녀관계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확인하고, 보다 원만하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서관계척도(ARS)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양상을 알아보고, 어떤 인물과의 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대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반영한 추후 연구들을 통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상담 장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사회적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자신의 관계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는데(Antonucci et al., 1998; Birditt & Fingerman, 2003), 이러한 특성이 여학생과 남학생 간 연구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다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학생은 가까운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독립과 같은 관계와 관련하여 응답할 때 실제보다 더 높게 응답하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적 독립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심리사회학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서, 조철호 (2013).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 강선희 (2009). 남녀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연 (2009).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K-OBC-Y)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영린, 이기학 (2012).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3(5), 2251-2270.
- 김예랑 (2013. 2. 26). 대학생 70%, 새학기 증후군 몸살 “인간관계 부담”.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2652760&intype=1>에서 2014년 2월 20일 인출.
- 김은영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87-120.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혁승 (2013). 비전공자를 위한 통계방법론. 서울: 오래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
- 이지영 (2003).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 및 자아 정체감과 의사결정유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2012).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서울: 집현제.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97.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경희 (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5(2), 52-68.
-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할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욱 (1996).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83-101.
- 진미경 (2012). 청년기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발달. *인간발달연구*, 19(3), 41-62.
- 진수경 (1995). 애착, 심리적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할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준, 이희자 (1994). 분리 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87-194.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Sage.
- Antonucci, T. C., Akiyama, H., & Lansford, J. E. (1998). The negative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 *Family Relation*, 47(4), 379-384.
- Armsden (1986).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Relationships to affective status, self-esteem and coping with loss, threat, and challen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86).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4), 1751-1752.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eyers, W., & Goossens, L.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ge,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63-382.
- Birditt, K. S., & Fingerman, K. S. (200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dults' descriptions of emotional reactions to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8(4), 237-245.
- Blos, D.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ubis, J., Lewin, T., & Dawes, F. (1989). Australi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3(1), 35-47.
- Douvan, E. A. M.,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Jessica Kingsley.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Hulin, C. L., Drasgow, F., & Komoc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attitude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6), 818-825.
- Jackson, P. B. (1992). Specifying the buffering hypothesis: Support, strain, and depress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4), 363-378.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91-106). New York: Springer.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 (pp.253-286). New York: Academic Press.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86-29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LC.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1), 52-56.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02-409.
- Moore, G. (1990). Structural determinants of men's and women's personal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5), 726-735.
- Okun, B. F. (1984). *Working with adults: Individual, family, and career development*.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248-255.
- Pantages, T. J., & Creedon, C. F. (1978). Studies of college attrition: 1950-1975.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8(1), 49-101.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2), 203-213.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 195-202.
- Sullivan, K., & Sullivan, A.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93-99.
- Takahashi, K., & Sakamoto, A. (2000). Assessing social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and adults: Constructing and validating the 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4), 451-463.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 차원고접수 : 2015.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3.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Park, Jung Ae

Jin, Mi Kyoung

Dept. of Play 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s in close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The subjects were 637 college students from 9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the Korean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the Korea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nd the 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greater the conflictual separation is, the higher the level of college adjustment. Second, male students were better adjusted to college because they were closer and more intimate with their fathers and romantic partners. Female students demonstrated similar results as they were intimate with their mothers. Third, among the influences of functional and emotional separation, moderating effects of the close relationship with par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llege adjustment of the male students. In other words, male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higher level of college adjustment because they maintained a closer and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even if they had an equal level of functional and emotional sepa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lose relationship with parents should be considered in college adjustment.

Keywords: psychological separation, close social relationships, adaptation to college